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1. 유엔난민기구(UHCR) 소식

유엔난민기구(UHCR), 유엔국제이주기구(IOM), 세계보건기구(WHO): G20 회원국 정상 및 정부에 백신 접근성 관련 공동 공개서한 송부 (요약)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 난민고등판무관, 안토니오 비토리노(Antonio Vitorino) 유엔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 테워드로스 아다하놈 거버레이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10월 30일과 31일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 모인 각국 지도자 및 정부에 공개서한을 송부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갈등, 박해 및 인권 침해, 사회, 경제적 어려움, 기후 변화의 영향 등의 이유로 본 거주지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이주민들은 새 거주지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배제와 방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처한 상황은 백신 접종 및 코로나 검사, 치료와 돌봄 등 권리 보장과 필요한 정보 획득을 어렵게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일부 국가들이 이주민 수용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이들 국가는 자국민은 물론 이주민을 위해 백신 및 기타 물품을 공급받아 이미 취약해진 자국의 보건 체계를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의 백신 배분 불공정성은 가난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소득 국가 국민 100명에게 평균 133회 분의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된 반면, 저소득 국가 국민 100명에게는 평균 4회 분의 백신이 공급되었습니다.

백신 배분의 불공정성은 인간의 삶에 일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공중 보건 재난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보건 체계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상호 협력임을 역사, 그리고 과학이 분명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고통을 감소시키며, 지속 가능한 범세계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백신은 공중보건 사태를 타개함에 있어 분명히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나, 백신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활동 범위를 파악하는 노력, 덱사메타손과 의료용 산소 등을 사용한 치료는 생명을 살리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며, 상황에 맞는 공중 보건 조치를 적용할 경우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에 모인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지닌 나라의 지도자로서, 백신 및 기타 물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유행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개최되는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이 현 세대가 직면한 큰 도전 과제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및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극복해나가며 “용기와 열망”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는 사실에 지지와 환영을 보냅니다. 이와 함께 UNHCR, IOM, WHO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약속할 것을 G20 정상회담 지도자들에 촉구합니다.

1. 극빈층을 위한 백신 공급량을 늘릴 것
2. 본 주거지를 떠나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백신 접근성을 보장할 것
3.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중소득 및 저소득 국가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이겨내는 과정을 지원할 것

우리는 대유행 상황 속에서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 각국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출처: [Open letter to G20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 UNHCR, IOM & WHO, UNHCR Official Webpage, UNHCR Media Centre](#)

2.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소식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제 1차 노인인권 국제 포럼 개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원장 지은희)는 10월 26일부터 27일 양일 간 제 1차 아셈 노인인권 국제 포럼을 하이브리드 형식(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을 모두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긴급 상황에서의 노인 인권 보호'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아셈 회원국 관계 부처, 학계, ASEAN, EU, WHO 등 국제기구의 노인인권 담당자,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세션 1에서는 '보건 위기에서의 노인'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노인에게 대한 폭력 및 학대의 급격한 증가와 보건위기에서의 대응정책에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진행된 '시민사회 토크콘서트'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노인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포럼 2일차 세션 2에서는 전쟁, 자연재해 등의 인도주의적 재난 상황에서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노인의 현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현재 국제인도주의 위기대응 메커니즘과 관련된 사안들을 짚어보고, 위기에 처한 노인을 위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션 3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환경의 관계, 자연재해 상황 속 고령자에 대한 피해 경감 사례 등을 다루었다. 세션 4에서는 연령주의가 국민 건강 및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연령주의 타파를 위한 전략을 담은 WHO 보고서가 소개되었고, 관련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국제포럼 기간 동안 '글로벌 노인 인권 캠페인 온라인 전시회'도 함께 개최되었다. 온라인 전시회에는 국제기구, 시민사회, 정부, 민간 부문 활동가들의 연령주의, 유엔노인권리협약, 고령여성, 노인 복지 등 노인 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취합하여 전시하였다.

이번 포럼은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출처: 제 1차 노인인권정책센터 국제포럼 컨셉노트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홈페이지)

3.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제 48차 인권이사회, 기후변화 특별 보고관 설치 등 주요 결의안 채택

9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된 제4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기후변화 특별 보고관 설치, 아프가니스탄 인권 특별 보고관 설치, 노인인권 등 안건에 대한 25개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기후변화 특별 보고관 설치 결의(A/HRC/48/14)는 특별 보고관을 3년 임기로 신설하고, 인권이사회 자문 위원회와 특별 보고관이 협력하여 기후 보호 관련 신기술의 영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결의안은 찬성 42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채택되었다. 또한, 해당 주제별 특별절차 신설로 총 45개의 주제별 특별절차가 운영될 예정이다.

아프가니스탄 특별 보고관 설치 관련 결의(A/HRC/48/1)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보고관을 1년 임기로 설치하는 것과, 2021년 말까지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인권이사회에 아프가니스탄 최신 상황을 보고하고, 제50차 인권이사회에 아프가니스탄 인권 상황과 관련한 구두보고를 요청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 보고관 설치 결의안은 찬성 28표, 반대 5표, 기권 14표로 채택되었다. 아울러, 이번 인권이사회를 통해 부룬디 특별 보고관이 신규 설치되어 13개의 국가별 특별절차가 운영될 예정이다.

노인 인권과 관련된 결의문으로는 제4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노인 인권 결의(A/HRC/48/3)의 주 내용은 노인 인권 규범 공백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9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제49차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것이다. 해당 결의안은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출처: Human Rights Council, OHCHR Official Webpage

4.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소식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기후 위기 속 책임성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열린 가운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COP26과 인권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유럽국가인권기구연합(ENNHRI),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기후 정책 및 기후 책임성 범위 내에서 인권 증진 및 지원 업무를 하는 국가인권기구가 기후 레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국가인권기구들은 심포지엄에서 기후 변화와 대응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기후 변화와 관련한 인권기구의 책무 및 해결 방안 인식,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기후 레짐과 연계한 전략 개발을 논의하였다.

심포지엄의 세션 1에서는 기후 레짐과 기후 협상의 기본 개념에 대해 소개하고 이 개념들이 시민사회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으며, 세션 2에서는 COP에서 인권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졌는지 살펴보고, 현재 인권과 관련하여 COP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았다.

세션 3에서는 기후 변화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도전 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과 인권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세션 4에서는 국가영토를 초월하여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가인권기구 대표들로 구성된 조사 위원단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세션 5에서는 기후 위기 속에서 책임성 차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토의하는 한편, 국내 및 국제 재판소에서의 기후 문제 관련 소송 진행 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출처: News and Events, GANHRI Official Webpage

5. 주요 국제회의 일정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일 시	회의 명
11/24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간담회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일 시	회의 명
11/3 -11/5	국가인권기구 COP26 심포지엄: '기후 위기 속 책임성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 UN

일 시	회의 명
11/1-11/12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실무그룹 제39차 회의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이지현 ljh820@nhrc.go.kr